

2018년 3차 시민 옴부즈만 정례회의 결과

| | |
|--------------|--|
|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30 ~ 11:50 |
| 장 소 | 도로시설처 강북도로기전관리소 |
| 참 석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부즈만 (3명) : 여호영, 박동욱, 류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참 옴부즈만 4명은 회의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공유 - 공 단 (6명) : 상임감사 직무대행, 팀장 3명, 담당자 1명, 직원 1명 |
| 회의순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분기 팀별 주요 감사활동 보고 및 질의응답 - 강북도로기전 상황실 견학 및 운영 현황 청취 - 홍지문 터널 내 풍도, 전기실 견학 |
| 회의요지 | <p><input type="checkbox"/> 2018년도 3/4분기 주요 감사활동 보고</p> <p>〈부패방지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2) 2018 간부직원 청렴도 결과 3) 2018 청렴콘텐츠 공모 결과 <p>〈경영감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 실무 매뉴얼』 수립·활용 추진 2) 3/4분기 공직기강 점검활동 3)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특별점검 <p>〈기술감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관리본부 종합감사 실시 2) 안전관리실태 점검활동 <p><input type="checkbox"/> 감사활동관련 질의응답</p> <p><input type="checkbox"/> 옴부즈만 위원의 제도개선 요구 (제도개선 현황)</p> <p><input type="checkbox"/> 강북도로기전관리소 운영실태 전반 청취 및 현장 견학</p> |

〈여호영 음부즈만〉

- 홍지문터널을 방문하니 2003년 6월경에 발생한 화재사고가 생각나는데 당시 상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차량 추돌로 인한 화재 사고였음. 당시 근무자가 연기를 빼내기 위해 환기팬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급기 버튼을 작동 후 급히 배기로 전환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사고 이후, 하루 1.5건씩 발생하는 터널 내 고장 차량 등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초동조치반’을 운영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을 개선(급기/배기 동시 투입 방지기능 구축) 완료하였음. 또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니 평소 느끼던 바를 얘기하고 싶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 중에 ‘갑질’로 느껴질 만한 일이 많음.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실수로 인해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도 확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계약 대상 업체로서는 난감할 때가 있음.
 - 보고드린 ‘갑질 근절 대책’은 인권 측면에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말씀하신 계약 상대방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도 계약 담당부서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음. 공정 계약지침이나 분쟁조정 수단 마련 등을 위해 변화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임.
 -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한계상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편의성을 높일 수는 없으나 해석, 적용 과정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임.

〈박동욱 음부즈만〉

- 공단은 청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매번 느낌. 기술감사팀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상시 감사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함.
 - 건설공사 안전사고 ZERO화, 사고 위험 공사장 중점 감사활동 강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3不(부실, 부조리, 불공정) 예방활동 등을 통해 공단 내 안전사고와 부조리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활동임. ‘상시 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함.
- 얼마 전 집중호우 때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인명 사고가 있었음. 공단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아닌지?
 - 동부간선도로는 월계1교의 침수 상황에 따라 차량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관리는 공단이지만 교통 통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맡고 있음. 당시 통제 요청은 적기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해당 부서에서 보다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중인 사항임.

○ 이번 종합감사 결과, 지적한 내용 이외에 ‘모범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함.

→ 모범사례는 총 5건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 추락방지용 방음시설 설치로 2차 피해 예방’,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인 응벽 유지관리방안 수립’, ‘터널 초동차량 긴급U턴 위험지역 안전성 확보’, ‘자동차전용도로 녹지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주체 명확화’, ‘유지보수자료 전산화 및 스마트 접속시스템 구축’ 이 있음. 감사결과 내부심의 회의 의결을 통해 표창 수여함.

○ 지난번 회의 때 권고한 ‘감사업무 매뉴얼’ 작업이 순탄하게 작업 중인 것으로 보여 매우 흐뭇한 마음이며, 다른 하나인 ‘고발기준의 강행규정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음.

→ 고발기준 강행 규정화는 「감사규정」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내용 외에 개정할 현안이 없음. 추후 다른 개정건이 발생하면 함께 추진하겠음.

→ 지난번 정례회의 때 ‘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의 현실화에 대해 제안해 주셨음.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소관부서에서 규정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이면 개정 후 공포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임.

<류현수 음부즈만>

○ 도로관리본부 종합감사를 해본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해당부서에서 대부분의 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가조사 등 예정가격의 결정, 발주 및 계약, 시공·준공(대금집행)·하자 관리 등 절차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사례가 있었음.

→ 실질적인 직무교육 실시, 부서자체심의(계약심사·기술심의 등 의뢰 전 발주부서 자체시행) 및 관리자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서 단순·반복적 행정처리 착오 근절 등을 위한 노력을 하겠음.

○ 여러 공공기관과 일해 본 바, 대체적으로 결재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공단이라도 먼저 그런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갔으면 함.

→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 권고안」 통보('18.6.)에 따라 ‘과다한 서면보고’, ‘자치단체 보고 대기’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 중이며 합리적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하겠음.

| | | |
|----------------|--|---|
| 조치사항 (사유기재) | 현지시정(권고) | - |
| | 지적사항 통보 | - |
| | 직권감사 전환 | - |
| | 내부 종결 | - |
| | 특이사항 | - |
| 제도개선권고사항 | 도시고속도로업무 규정의 개정 권고 | |
| | 고발기준의 강행규정화 권고 | |
| | 감사 업무 매뉴얼 작업 권고 | |
| 향후계획 | 제도개선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추진 등 | |
| 회의사진 |  |  |
| | 정례회의 | 홍지문터널 풍도 견학 |
| |  |  |
| | 상황실 견학 | 홍지문터널 내부 견학 |

끝.